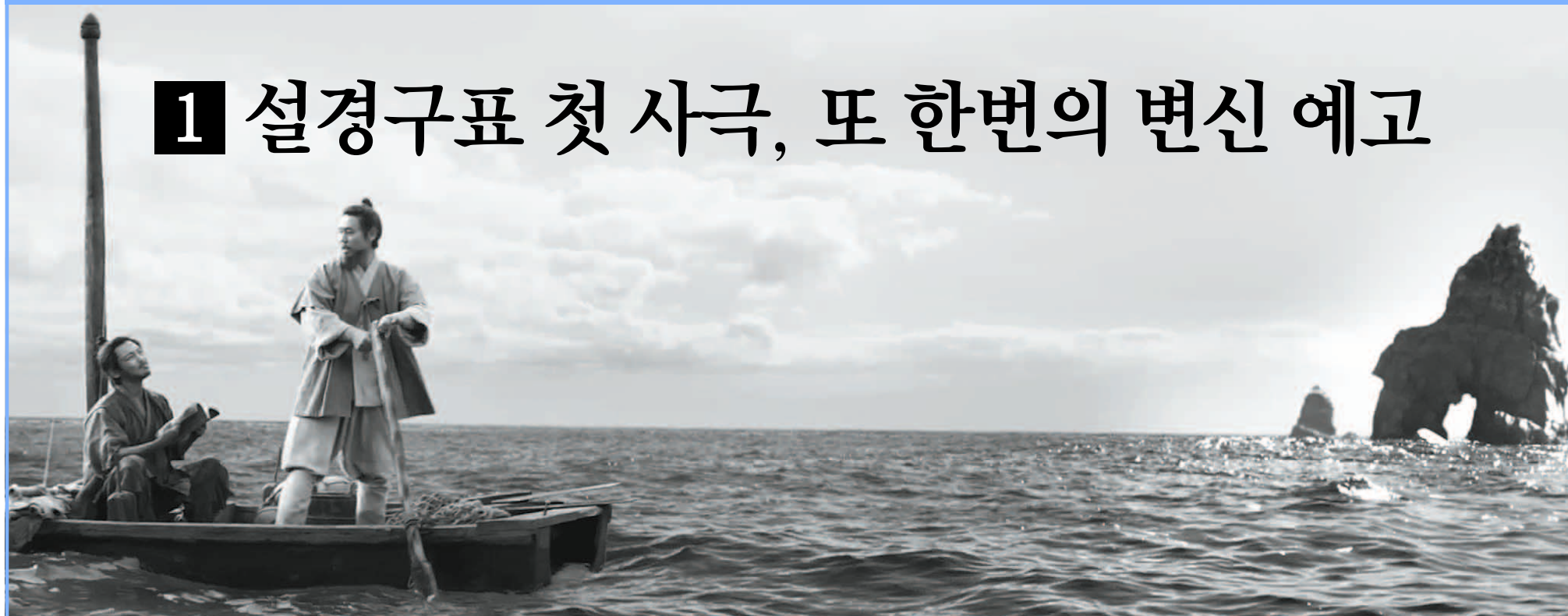


1 설경구표 첫 사극, 또 한번의 변신 예고



배우 변요한(왼쪽)과 설경구가 주연해 3월31일 개봉하는 '자산어보'가 광활한 바다의 풍광을 스크린에 담아 관객에 대리만족을 선사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 변요한, 청년어부 완벽 변신

3 이준의 감독, 흑백 감성 어필

4 개봉 한달 전에 관객과 소통

배우 설경구와 변요한 그리고 이준의 감독이 비상한 출사표를 던졌다. 3월 31일 개봉하는 영화 '자산어보'의 주역으로서 제각각 새로운 작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 관객과 함께 나누려는 이른 시도에 나섰다. 개봉 한 달여 전부터 일찌감치 관객 소통을 위한 발걸음을 뒀다.

설경구는 '자산어보'를 통해 1990년대 후반 데뷔 이후 처음으로 사극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극중 흑산도로 유배돼 바다 생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류학서 '자산

어보'를 집필하는 정약전을 연기했다.

앞서 2017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와 멋들어진 스타일로 관객의 지지를 얻어 '중년돌'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후 '살인자의 기억법' '우상' '생일' 등을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여온 그는 사극을 통한 또 한번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팬들 역시 영화 예고편과 일부 스틸컷 등으로 설경구의 사극 이미지를 확인하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변요한은 2017년 '하루' 이후 4년 만에 스크린에 나선다. 금공부로 출세를 꿈꾸는 흑산도 청년 어부 역을 맡아 설경구와 지식을 나누며 그의 '자산어보' 집필 과정에 도움을 준다. 캐릭터 설정의 배경이 되는 전라도 사투리를 호남 출신들로부터

터 익혔고, 수영과 생선 손질 교습을 받는 등 펼쳐온 노력의 결과물이다.

2013년 '소원' 이후 8년 만에 '자산어보'를 통해 설경구를 만난 이준의 감독은 다시 한번 흑백영화의 감성을 담아낸다. 앞서 '왕의 남자'와 '사도' 등으로 사극 영화 연출에 남다른 재능을 담아내온 그는 2016년 '동주'에 이어 새롭게 흑백 영화를 선보이게 됐다.

그는 "현란한 컬러가 아닌 흑백의 영상을 통해 각 인물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면서 "흑산도와 바다 등 광활한 자연풍광을 무채색으로 담아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변요한은 "캐릭터의 눈과 표정,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자산어보'의

또 다른 주역 이정은도 "각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된다"면서 컬러 화면이 드러낼 수 없는 장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제작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의미와 의도에 대해 관객에게 설명했다. 이날 제작보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지만, 개봉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역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를 일찌감치 마련해 홍보 및 프로모션의 출발점을 알린 자리여서 더욱 그렇다.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과 흥행 가능성을 미리 엿보려는 제작진의 조심스런 자신감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오종혁

‘클릭비’ 출신 오종혁 귀신잡는 해병 출동

가장 강한 특수부대 뽑는 대결
채널A 새 예능 '강철부대' 출연
해병수색대 예비역...열정 넘쳐

그들 클릭비 출신 가수 오종혁이 채널 A 새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다. 연예인이 아닌 해병수색대 예비역으로서 참여해 시선을 끈다.

오종혁은 채널A와 SKY가 공동제작해 3월 방송을 시작하는 '강철부대'에서 다른 해병수색대 예비역 3명과 팀을 이룬다. 이미 3일 강원도 모처에서 관련 촬영을 마쳤다.

'강철부대'는 특수부대 출신 최정예 예비역들이 체력과 극한의 정신력 대결을 통해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평가하는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해병 수색대와 함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해군 해난구조전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등 국내 '티어 1급'(각 특수부대의 임무 등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등급) 6개 부대 출신 24명의 예비역이 참여한다.

오종혁은 해병수색대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특수부대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제작진의 기획 의도에 공감하며 출연했다. 그의 '해병수색대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종혁은 2011년 4월 입대 당시 해병수색대에 지원했다. 연예활동으로 고등학교 출석일수가 부족해 불합격하자 직접 해병대 사령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수색대로 옮겼을 정도다. 또 2013년 1월 전역을 앞두고 휴먼기 훈련을 받기 위해 제대 일정을 한 달 미루기도 했다.

이에 '강철부대'를 통해 특수부대 예비역으로서 각종 미션을 해결해가는 모습의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K팝 그룹, 일본시장 공략작전

트와이스·세븐틴·더보이즈·트레저
온라인 콘서트·팬미팅·앨범 발표

케이팝 그룹이 일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지 최정상에 오른 걸그룹 트와이스부터 갓 데뷔한 신인그룹까지 저마다 매력으로 영역 확장에 나선다. 아시아 최대 음악시장이었던 중국이 한한류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케이팝 열기가 대체시장인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트와이스는 3월 일본 팬들을 위한 온라인 공연을 연다. 그동안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개최했다면 이번엔 오로지

현지 팬들만을 위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3월6일 오후 온라인 라이브 '트와이스 인 원더랜드'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의 '신체감 커넥트 스페셜 라이브'의 일환이다.

트와이스는 "(트와이스의)원더랜드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이들의 잃어버린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주제를 내세워 확장현실(AR)과 복합현실(MR) 등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도쿄돔에서 열 예정이었던 월드투어 '트와이스라이츠'(TWICELIGHTS)를 감염병 확산 여파로 연기·취소하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그 아쉬



트와이스

움을 풀겠다는 각오다.

아이돌 그룹 세븐틴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일본 팬들을 찾는다. 이들은 4월21일 일본 세 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를 내고 기념 토크쇼를 연다. 이어 4월27일 온라인 팬미팅 '하레'(HARE)도 개최한다. 이들이 일본 팬과 만나는 것은 2019년 오사카 등 일본 4개 도시에서 진행한 투어 '오드 투 유' 이후 처음이다.

'하레'는 '날씨가 맑아진다'는 일본어에서 따와 이름 붙였다. 여기에 '캐럿'(팬클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맑아진다는 세븐틴의 마음을 담았다.

신인그룹은 더 공격적이다. 더보이즈, 트레저, T1419 등도 다음달 일본어 앨범을 잇달아 내놓는다.

더보이즈는 3월7일 일본 첫 정규앨범 '브레이킹 댄'을, 트레저는 같은 달 31일 일본 정규 1집 '더 퍼스트 스텝:트레저 이펙트'를 각각 선보인다. 트레저는 최근 국내 정규 1집 수록곡 12곡을 일본어로 불렀고, 여기에 첫 일본 오리지널곡이자 일본 만화영화 '블랙 클로버' 엔딩곡 '뷰티풀'을 더 했다. 1월 데뷔하며 '한·일 동시 스타'라는 콘셉트를 내건 T1419는 이미 11일과 12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MADE IN KOREA 2021년 '비버리힐즈 폴로클럽' 최신제품!

100% 수작업 국내생산,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생고무창, 폭신한 쿠션감

발이 편한 컴퍼트화

최상의 재질과 세련된 디자인, 신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

정통 유럽 브랜드 비버리힐즈 폴로클럽에서 새로운 컴퍼트화를 출시하였다. 부드러운 외피와 완벽한 통풍성에 강력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탑재한 컴퍼트화다. 기존의 신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하였고 디자인 또한 유럽풍으로 세련되고 수려하다.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신은 듯 안 신은 듯 발에 감기는 착화감이 압권이다. 새로 산 신발은 발에 잘 맞지 않아 얼마간 신어야 비로소 발에 맞춰지지만 리디비 컴퍼트화는 처음 신는 사람도 오랜 시간 신는 신발처럼 발에 잘 맞는다. 유럽풍 디자인은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다크 브라운의 외피 색상은 중후하고 우아한 패션을 만들어 준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이 폴로클럽 컴퍼트화의 장점이다. 폴로클럽 컴퍼트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존의 제품들과는 완벽하게 차별된다. 밑창과 외피로 이어지는 부분은 꼼꼼한 손 바느질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어 장기간 신을 수 있다. 또한 밑창은 잘 닳아 지지 않는 특수 러버창을 채택하여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끄럼없는 안전한 보행을 만들어 준다. 강력한 밑창은 과격한 움직임이나 거친 장소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발을 보호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비버리힐즈 폴로클럽 컴퍼트화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 기성화를 신기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발의 모양대로 감싸주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족형에도 마치 맞춤화처럼 잘 맞아 발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이 편한 폴로클럽 컴퍼트화는 장시간 보행을 하여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발이 편해 일상화에서 작업화 및 여행, 야외활동등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2021 런칭기념으로 파격적인 이벤트가 진행중으로 놀라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발관리가 중요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2021 비버리힐즈 폴로클럽 컴퍼트화를 강력 추천드린다. 이벤트는 신착순 100분 한정으로 파격가 및 무료배송으로 진행 되고있다. 6개월 무상 A/S 보장

※ 특가 행사 제품으로 주문량이 폭주하여 일부 사이즈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가: 159,000원
출시기념 / 파격가: 5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 / 285mm

입금계좌 / 우의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신고 벗기 편한
고급 내측 지퍼장치

2중 패딩 감피 디자인
(8mm 스펀지 폼 사용)

뒤틀림 방지 장크러쉬

생고무 투명창 아웃솔

모델명 : PL-02(브라운)

- 천연소가죽 외피 - 부드럽게 발을 감싸준다. 내구성 강화
- 투명 생고무창 - 마모에 강하고 접지력 향상
- 10mm EVA인솔 - 폭신한 쿠션감
- 내측지퍼 채용 - 신고 벗기 편하다.
- 라운드 토우(TOE) - 자연스러운 곡선미의 디자인
- 뒷굽치 2중 패딩 - 발이 배기지 않고 착화감 향상
- 글로벌 디자인 - 연령대와 복장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성
- 중창택션상크 - 찰음을 넣어 신발의 뒤틀림을 방지

모델명 : PL-01(블랙)

NAVER 진수테크쇼핑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